

딥시크, 15.6조 투자유치 추진... “단기 수익보다 AGI 우선”

(인공일반지능)

오늘 AI

오픈소스 AI 모델 개발 지속과 AGI 달성 장기 목표로 제시
투자유치 시 기업가치 450억
에이전트 AI 영역으로 사업 확장

중국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도 단기 수익화보다 인공일반지능(AGI) 연구를 우선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소스 AI 모델을 앞세워 급부상한 딥시크가 기술 개발 중심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 딥시크 “수익보다 AGI 우선”...100억달러 투자 추진

25일 업계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딥시크가 약 700억 위안(약 15.6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단기 상업화보다 획기적인 AI 연구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딥시크가 약 700억 위안(약 15.6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따능AI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딥시크 창업자량원평은 투자자 회의에서 오픈소스 AI 모델 개발을 지속하는 동시에 AGI 달성을 장기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매출 확대보다 기술 한계 돌파와 모델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투자 유치가 성사될 경우 딥시크

기업가치는 약 450억달러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투자 후보군으로는 중국 국가 인공지능 산업 투자 펀드와 텐센트홀딩스, IDG캐피탈 등이 언급된다.

특히 중국 정부가 조성한 국가 AI 투자 펀드가 참여를 검토하는 점도 시장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딥시크를 미국 오픈AI에 대응할 전략 AI 기

업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AI업계 한 관계자는 “딥시크는 단순 서비스형 AI 기업보다 기술 연구 조직에 가까운 방향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라며 “중국 정부 자금까지 결합될 경우 컴퓨팅 인프라와 인재 확보 경쟁에서도 공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오픈소스 앞세운 중국 AI...미국과 다른 경쟁 구도

딥시크는 지난해 저비용 AI 모델을 공개하며 글로벌 AI 업계 주목을 받았다. 이후 중국 오픈소스 AI 생태계 확대를 이끄는 대표 기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현재 중국 AI 기업들은 오픈소스 전략을 기반으로 개발자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알리바바의 ‘큐원(Qwen)’ 역시 개방형 모델 전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딥시크 전략이 미국 빅테크 중심 AI 경쟁 구도와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미국 기업들이 수익 모

델 확보와 기업공개(IPO) 가능성 등을 동시에 검토하는 반면, 중국은 모델 성능과 생태계 확대, AGI 주도권 확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글로벌 AI 업계에서는 컴퓨팅 인프라 투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수익성 압박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 역시 신규 수익 모델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딥시크는 최근 에이전트형 AI 영역으로도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순 AI 모델 개발을 넘어 실제 업무 자동화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아시아 AI 모델 시장은 토큰 기반 경제 구조로 이동하면서 미국과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낮은 전력 비용과 대규모 개발자 생태계를 기반으로 AI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네이버, 배민 인수설... 플랫폼 재편 가능성

네이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가능성 완전히 닫지 않은 입장’ 해석
기존 커머스·지도·멤버십 연계 전망

네이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커머스·멤버십·지도 사업과의 시너지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 네이버 “확정된 내용 없다”...시장선 가능성 주목

25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가 컨소시엄 형태로 우아한형제들을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9일 풍문 또는 보도 해명 공시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인수 가능성을 공식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



우아한 형제들 사옥. /우아한형제들

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은 수준의 입장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 주주인 달리버리하여로 DH는 포트폴리오와 자본 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DH가 재무 부담 완화와 사업 재편 차원에서 배민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버가 최근 DH 지분 19.5%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선 점도 시장 관심을 키우는 배경으로 꼽힌다.

◆ 커머스·지도·멤버십 시너지 가능성 거론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배달 플랫폼 시장과 연결될 경우 기존 커머스·지도·멤버십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중심으로 쇼핑·예약·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역 기반 서비스와 음식점 검색, 주문 기능 등이 결합될 경우 플랫폼 체류시간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실제 인수가 추진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외국인 투자 규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향력이 큰 네이버가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경쟁 제한성 여부를 둘러싼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거래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배달 플랫폼 시장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 자체에는 업계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오는 6월 11일 개막하는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 방송 중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 U+, 월드컵 중계 위해 전용회선 구축

해저케이블 1.4만km 6원화
‘3단계 대비 시스템’ 한층 강화

LG유플러스가 다음 달 11일 개막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의 지연 없는 중계를 위해 전용 회선 구축에 나선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약 1만4000km 구간의 해저케이블을 6원화로 다중 구축하고, 24시간 상시 점검 체계도 가동해 철나의 끊김도 없는 무결점 중계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오는 6월 11일 2026 FIFA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현장의 생생한 열기를 끊김 없이 전달하기 위해 국제 방송 중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북중미에서 열리는 2026 FIFA 월드컵 기간 동안 전용 방송 중계 회선을 구축해 국내 주관방송사에 제공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2024 파리 올림픽 등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의 국내 중계도 담당해 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장거리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끊김 현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 대회 중계에 적용해 온 ‘3단계 대비 시스템’을 이번 월드컵 중계에 맞춰 한층 강화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2026 FIFA 월드컵 국제방송센터(IBC)가 위치한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국내 방송중계 거점까지 약 1만4000km 내 해저케이블 경로를 6원화한다.

구체적으로 달러스에서 LG유플러스L

A PoP(접속거점)를 거쳐 태평양을 지나 LG유플러스 안양사육까지 이어지는 경로에는 4개 회선, 달러스에서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및 LA를 거쳐 태평양을 통과한 뒤 LG유플러스 방배사육으로 연결되는 경로에 2개 회선을 구축했다. 중동 전선으로 인한 변수를 피하기 위해 대서양-인도양을 통과하는 전송 경로는 구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영상 전송 전 과정에 히트리스 프로텍션 기술을 적용한다. 이 기술은 모든 회선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동시에 수신해 실시간으로 패킷을 분석하고, 한쪽 회선에서 이상이 감지될 경우 다른 회선으로 즉시 전환해 시청자가 체감할 수 있는 화면 끊김을 최소화한다.

또 LG유플러스는 해저케이블 회선 전반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지 인터넷망을 활용한 SRT(스트리밍 프로토콜 가운데 하나로 영상을 전송하는 체계도 준비한다.

현지 인터넷망까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MNG(이동통신망을 활용해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송 중계 방식) 장비를 활용한 무선 전송 시스템도 가동한다. 약 1kg 무게의 휴대형 네트워크 장비로 현지 이동통신망을 연결해 긴급 상황에서도 필요한 영상 송출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2026 FIFA 월드컵 기간 동안 방송중계·IPTV 등 유선플랫폼 서비스의 컨트롤러인 안양사육에서 통신 인프라 전 구간에 대해 24시간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한다.

/조민선 기자 msjo@

엔트로픽 ‘미토스’, 전 세계 소프트웨어서 취약점 1만개 찾아

보안 프로젝트 투입 한 달 만의 성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의 미공개 최신 AI 모델이 글로벌 보안 프로젝트 투입 한 달 만에 전 세계 핵심 인프라 소프트웨어(SW)에서 1만개가 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무더기로 발굴해 냈다.

AI 모델이 사이버 공격의 강력한 무기로 악용되는 것보다 빠르게 전 세계 주요 전산시스템의 보안 구멍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메우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공동 방어 전선이 첫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자사가 주도하는 글로벌 AI 보안 공동 프로젝트

‘프로젝트 글래스wing’의 출범 한 달 차 초기 성과 보고서를 지난 2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토스 프리뷰는 프로젝트 가동 한 달 만에 이들 주요 시스템에서 1만개 이상의 ‘심각함(High)’ 및 ‘치명적(Critical)’ 등급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내는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했다. 이는 보안 업계에서 즉각적인 해킹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준의 결함들을 의미한다.

글래스wing에 참여한 대다수 빅테크 파트너사들은 미토스 프리뷰를 도입한 이후 자사 SW 내에서 각각 수백개의 치명적인 취약점을 식별해 냈으며, 버그 탐지 속도가 기존 대비 10배 이상 빨라졌다고 전했다.

다만 역설적으로 AI의 취약점 발견 속도가 인간의 보안 조치 역량을 아득히 초월하면서 사이버 보안 생태계가 극심한 과부하 상태에 직면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기존 SW 보안은 새로운 취약점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기술적 한계였으나, 이제는 AI가 며칠 만에 수천 수만개의 치명적 버그를 쏟아내면서 인간 개발자가 이를 검증·고지하고, 패치 코드를 짜서 배포하는 인간의 물리적 시간이 병목 구간이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AI 모델의 사이버 보안 역량이 일반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유출되거나, 충분한 방어적 안전장치 없이 출시될 경우 전 세계 소프트웨어 환경이 붕괴할 수준의 대재앙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뉴스시